



온전한 헌신

미국 시카고에는 휘튼 칼리지(Wheaton College)라고 하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.

그 대학에는 브랜카드 홀(Blanchard Hall)이라는 건물이 있는데,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. 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, 그것은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하였다는 표시입니다.

그 학교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(Jim Elliot)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.

그는 남미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순교했습니다.

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에게 "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?" 하고 위로하였습니다. 그때 부인은 "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. 비극이라니요?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 곳에 갔습니다.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." 하고 대답을 하면서 남편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 썼던 큐티노트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.

"결국은 끝까지 불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.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.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불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.

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불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.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. 명성도, 자기 만족도 쾌락도,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불들고 있을 수 없다.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. 오 하나님!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.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. 주여,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!"

출처 - 경주하는 삶이 아름답다 / 김동호 (2002/05/07)